

정부·광주시, 삼성 해외공장 광주 유턴 적극 추진 나서야

삼성전자 광주공장 증설 기대
생산·수출 증가 인력 확충 나서
광주 1차 협력업체만 50여곳
증설 실행때 경제효과 막대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 위기에 삼성전자가 광주사업장을 생산·수출량이 증가하면서 집체로 빠진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경제계도 광주사업장의 증설과 규모 확대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해외로 빠져나가기만 하던 국내 제조업체 현실과 반대로, 오히려 삼성전자가 광주사업장의 생산인력 확충에 나서면서 관련 일자리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광주사업장에 부품을 납품하는 1차 협력업체만 광주·전남에 50여 곳이 넘는다는 점에서 삼성전자 가전제품 생산 증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광주·전남 지역 소재 1차 협력업체만 50여 곳이다. 2차·3차 협력업체까지 더하면 그 수가 2~3배가 넘을 것이라는 게 지역 제조업체계의 설명이다.

가전제품과 더불어 지역 내 주요 산업으로 꼽히는 가이아 광주공장의 협력업체 상당수가 타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것과 달리,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협력업체는 광주·전남에 몰려 있다는 점에서 광주사업장 규모 확대에 따른 파급효과는 더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산업단지공단 5월 주요 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 자료를 보면 삼성전자 협력업체가 많은 광주첨단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은 총 1064개사로, 전기전자 분야 업

체만 463개사에 이른다. 또 전체 고용인원 1만6823명 중 전기전자 분야 업체 고용인원은 전체의 67.11%인 1만129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경제계는 삼성전자가 “광주사업장 증설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증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코로나19 종식 시점을 가늠할 수 없는 데다, 전염병 확산으로 해외 공장가동이 중단되는 사례가 또 다시 발생하는 등 이후 추가적인 생산 리스크도 여전히 우려되고 있어서다. 삼성전자가 방역체계와 안정적 생산기반을 갖춘 국내 공장을 비롯해 국내 생활가전의 전조기지로 불리는 광주사업장의 증설·확대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는 등 경제위기에 극복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도 광주사업장 증설 및 규모 확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국내 1위 기업인 삼성전자가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광주사업장을 우선으로 증설 및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광주는 생산·제조업체가 적어 경제규모가 적었던 데다, 수년간 기업의 생산라인 해외 이전과 경영악화에 따른 공장 폐쇄가 잇따랐다는 점에서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증설 가능성에 지역 경제계의 기대도 크다.

광주 경제계 관계자는 “경제규모가 작은 광주에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증설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는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보인다”며 “낮은 인건비 등 해외공장의 이점을 상쇄해 기업들이 국내로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정부와 광주시가 형식적인 지원책이 아닌, 적극적인 지원으로 투자유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코로나19 사태에도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의 가전제품 생산·수출이 크게 늘면서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해외공장 ‘셋다운’ 등으로 안정적 생산·공급이 가능한 광주사업장의 수요 물량이 증가, 삼성전자가 인력확충에 나서면서 광주 경제계는 광주사업장 증설에 기대를 걸고 있다. 광주시 광산구 삼성 광주사업장 전경. (광주일보 자료 사진)

민주당 당권레이스 개막...이낙연·김부겸 오늘 후보등록

李, 내일 광주서 ‘지역 메시지’
최고위원도 10여명 출마 예상

20일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 대표 후보등록이 시작되는 등 민주당 전당대회가 본격 레이스에 돌입한다.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은 20일 후보 등록을 마친 뒤 본격 표심잡기에 돌입한다. 이번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에는 10여명이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의원은 21일 광주를 찾아 지역 현안 사업 해결과 지역 발전 전략 등을 담은 ‘지역 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등록은 20일과 21일 이틀간 실시된다. 이 의원은 20일 오전 현충원 참배

후 후보 등록을 한 뒤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20~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22~24일 국회 대정부 질문 등 국회 의사일정도 동시에 소화해야 하는 만큼 효과적인 동선 짜기에 골몰하고 있다. 21일 광주를 찾는 이 의원은 광주시의회를 찾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론 등을 청취한 뒤 망월동 묘역을 참배한 뒤 상경할 계획이다. 또 이번 광주 일정을 통해 광주·전남의 미래 발전 전략 등을 담은 메시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어 이 의원은 지역 대의원대회가 열리는 각 지역을 찾아 지지를 호소한다. 22일 강원도, 24일 제주도 등지를 찾는 등 지역 일정을 소화할 방침이다.

김 전 의원은 20일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지난 주부터 시작한 지방 순회를 이어가며 이낙연 대세론을 흔들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18일 권양숙 여사와 김경수 경남 지사를 차례로 만난 김 전 의원은 “노무현의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문재인 정부의 분권 철학처럼 지방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당 대표 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최고위원 선거 후보군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10여명이 출마할 전망이다. 지난 17일 재선인 이재정 의원이 먼저 출사표를 던졌고, 3선 이원욱 의원은 19일 출마를 공식화했다. 4선 노용래, 3선 진선미 의원과 재선인 소병훈·신동근·김종민·한병도 의원의 출마가 예상된다. 조선으로는 유일하게 양향자 의원의 출마가 거론된다. 원외에서는 연태영 수원시장이 출마를 고심

하고 있다. 최고위원 후보에 8인 이상이 등록하면 24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예비경선(컷오프)을 치러 8명을 추린다. 본선에서 5명을 뽑고 이 중 최소 여성 1명이 포함돼야 한다.

한편 민주당 당권 구도는 ‘이재명 변수’에 출렁일 조짐이다. 이 의원 캠프는 이 지사의 대법원 판결로 인한 전대 파급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김 전 의원측은 이 지사 지지층을 겨냥한 메시지를 연이어 발신하면서 ‘이낙연 대세론’을 향한 견제심리 결집에 시동을 거는 분위기다.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7일 “이낙연 의원과 나는 살아온 삶의 과정이 너무 달라서 깊이 교류할 기회가 실제로 될 일이 원천적으로 없었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정총리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고려해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19일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심신이 지친 국민과 의료진에게 조금이나마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 내수 회복의 흐름도 이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지시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가 어렵고 많은 국민과 의료진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법정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날이 많아 전체 휴일 수도 예년보다 적다”고

부연했다.

올해 광복절(8월 15일)은 토요일로, 이어지는 월요일인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사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진다.

또한 정 총리는 “오늘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조정방안도 논의할 것”이라며 “주민들이 자주 찾는 공공 도서관과 미술관 등 편의시설 운영을 재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입장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도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할 것”이라며 “공공시설 운영 재개가 다른 분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한표 효과 권리당원 70~80배...“대의원 표심을 잡아라” 민주당 전대 주자들 공략 집중할 듯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직에 출사표를 던진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은 20일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전국대의원 표심 잡기에 집중할 전망이다. 1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전국대의원의 한 표가 권리당원 70~80표가량의 효과를 지닌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전당대회는 특히, 코로나 19 여파로 비대면으로 치러지는 만큼 8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권리당원을 직접 만날 수 없고, 각 지역의 대의원대회도 추

소되기 때문에 ‘충성도 높은’ 전국대의원 확보가 당대표 선거의 당락을 쥐고 있다 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당권 주자들은 각 지역의 대의원대회 일정에 맞춰 지역 순회일정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대의원의 지지층을 넓히면서 공식 레이스에 돌입할 전망이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전국대의원의 현장 투표(45%)와 권리당원 ARS 투표(40%), 국민(10%)·일반당원(5%)의 표를 합산해 당

대표를 선출한다. 현재 전국대의원은 1만여명 가량으로 추산되며, 적용 비율(45%)이 가장 높기 때문에 전국대의원의 한 표의 파급력이 클 것으로 분석된다. 수치상으로는만 전망했을 때 전국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의 70~80표의 힘을 발휘한다는 게 민주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당권 주자들도 전국대의원 확보에 유리한 일정을 짜고 있다. 이낙연 의원은 각 지역위원회 대의원대회가 열리는 전날 해당 지역을 방문해 표밭을 다질 계획이며,

김부겸 전 의원 측도 각 지역 대의원 대회에 초점을 맞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김 전 의원은 최근 광주지역에서 조직을 띄우고 ‘호남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준비에도 나섰다.

이처럼 전국대의원의 몸값이 치솟으면서 1000여명가량을 선출한 광주·전남지역 전국대의원 선출 경쟁도 뜨거웠다. 지난 17일 전국대의원 선출을 마무리한 광주지역에서는 특히 광산갑과 광산을의 대의원 경쟁이 치열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백내장 오인하는 익상편, 원인과 치료

◆ 익상편이란?
 익상편은 주로 안구의 내측 결막(흰자위)에서부터 각막(검은동자) 쪽으로 섬유혈관조직이 증식되어 침범, 진행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익상편은 ‘굳날개’라고도 하며, ‘백태’가 낀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 증상
 흰색의 섬유혈관성 조직이 검은자를 덮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미용상 문제가 되는 것 외에 문제는 없으나, 간혹 심한 경우 난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진행이 많이 되어 동공(애기동자)까지 침범했을 경우에는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곤하고 눈이 자극받으면 충혈이 유난히 심해지기도 합니다.

◆ 치료
 익상편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증상에 따라 증상의 호전을 위해 약물치료를 합니다. 그렇지만 약물치료로 익상편 자체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각막을 많이 침범하지 않은 대개의 경우는 경과 관찰만 하면 되고, 진행이 많이 돼 동공 근처까지 침범한 경우에는 시력보호를 위해 수술로 제거하게 됩니다.

◆ 수술방법
 익상편 수술은 국소마취로, 약 30분 정도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통증과 이물감이 있을 수 있으며 약 한 달간 간헐적인 통원치료를 해야 합니다. 수술 시기의 결정은 동공까지 익상편이 침범했을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시행하여야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환자들의 생활에 얼마나 지장을 주느냐를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

의료광고심의필 제 191202-중-102256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척추, 관절 중점 진료



한결같은 마음으로 “곧은 척추, 굳건한 관절”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팜암공원 앞 위치